

Dear Y's Friends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번 와이즈멘 회기연도는 매우 빨리 끝나가고 있으며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나온 회기연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임기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 개발은 우리가 전개하는 운동의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리더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후계자들에게 자갈길을 물려주기 위한 준비를 할 때에는 우리의 후계자들이 그들 앞에 있는 중요한 과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내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며 성장하게 하는 도구 중의 하나는 앞을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클럽 차원의 서류는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만일 귀하의 클럽이 이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귀하의 지구총재에게 복사물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변화하는 리더십에 대하여 언급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에 의하여 착수된 일에 기초를 둔 것이며 다음 세 가지 가정(假定)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도자를 주목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꿈과 열정을 지닌 사람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로 여러 가지 일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열정의 에너지를 주입(注入)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자면 우리의 클럽들이 오늘날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난 호가 출간된 이후로 새로운 국제 사무총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카오 니시무라(약칭: 니시)가 국제 회의에서 Rolando Dlams의 후임으로 만장일치 선임되었습니다. Dalmas씨는 11월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니

시 신입 사무총장은 와이즈멘 뿐만 아니라 YMCA분야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입니다. 그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요코하마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만, 본인은 모든 분들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이뤄지도록 요코하마 국제 회의에 등록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국제 사무총장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된 국제 차기총재 Finn Pedersen씨와 새로운 국제 재무국장인 TM Mathew씨도 참석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연도는 많은 도전과 성취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본인이 우리의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인은 감동적인 많은 분들을 만났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으로 인하여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와이즈멘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코하마에서 많은 분들을 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Yours in Y'sdom, (와이즈 동안에서)
IP Kevin 국제총재 케빈 드림

Y's Men's World
Nº 4 2009/10

Editor
Alan Wallington

21 Overndale Road, Dotenend, Bristol BS16 2RU, England
Tel: +44 (117) 9568285 - Skype phone: ysmawally
email: editor@ysmen.co.uk
Layout Support: Graham Walker, Mike Bendrey & Carol Lunt

<small>Distribution Josey Joseph Pallankulam, PTR 96 Plamood, Trivandrum 695 004, India</small>	<small>Reprinted at S T Reddiar & Sons (EKM) Ernakulum, Cochin 682 035 India</small>
--	---

ONLY FOR PRIVATE DISTRIBUTION TO MEMBERS

Deadline for contributions to next issue
22nd August 2010

차기 국제 총재의 비전

By IPE Hirotooshi Fujii



본인이 임무를 수행하는 2010/11 회기의 주제로서 '다시 한 번 일어나자(Once More We Stand)'라는 표어를 선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우리의 창설자 Paul William Alexander씨가 작사한 와이즈멘의 주제가 첫 줄의 가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의 조직체를 처음 창설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그가 지녔던 열심과 열정을 우리 회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걸어놓은 슬로건은 '미래에도 다리를 놓자'입니다. 본인은 진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운동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열망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확신하거니와 다음의 회기는 국제조직으로서 우리가 전개하는 획기적인 회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대규모로 세계문제에 대하여 전력을 투구하여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라리아 퇴치운동을 향후 5년간 더 연장해서 실시할 것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도 새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자연의 햇살을 후손에게 전하자'라는 2010 요코하마 국제회의의 주제에 따라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끌어온 과제입니다. '팔라리아'와 '환경'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제는 YMCA가 그들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또 유엔이 2015년까지 성취하기로 예정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두 가지 항목입니다.

지난 10년간 와이즈 유스클럽을 일으키려는 노력덕분에 그들의 회원 수가 지난 회기에 400으로 늘어났으며 그들은 다음 회기에는 그들의 조직과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됨으로써 더욱 큰 현저한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이 모든 회원들에게 꼭 실천에 옮기도록 당부하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우는 일입니다. 즉 각 지역, 지구, 지방, 그리고 클럽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과제에 초점을 맞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그 과제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동 전체를 재활성화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와이즈덤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일어나라!

신임 국제 재무의 메시지

by TM Mathew, IT 2010-13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정말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와이즈멘은 비전이 있는 꿈을 지녀야 합니다. 그 비전이 장기간의 비전이거나 아니면 단기간의 비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비전은 마땅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 있어야 하며 또한 좋은 슬선(率先)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개하는 운동이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최고의 봉사기관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본인 개인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재정적인 도움이나 혹은 인류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국제 재무총장 회기 중에 본인이 소원하는 것은 전임자들이 그러했듯이 본인이 재정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투명성 있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현재 우리의 재정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다소 염려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봉사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금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편성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큰 우리의 과제입니다. 본인은 우리 회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분발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란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이 없고 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쓸모가 없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최악의 형태의 빈곤입니다. 우리는 우리 클럽의 수준에서 이런 종류의 빈곤을 치유하기 위하여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더 위대한 성취를 위해 무섭게 도전하면서 열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 조차 나누어 줄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에서 평가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클럽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본인의 임기가 끝날 때 본인이 우리 운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모았다거나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을 했으며 본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을 위해 본인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집이 없었을 때 너는 나를 맞아들였느니라."

활동 중인 와이즈 메넷

By Carol Reynolds, International Director, Y Menettes 와이즈메넷 국제총재

자마이카의 The Savanna la Ma 와이즈메넷은 1973년 3월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회원 수는 20명입니다. 그들은 몇 년 전 와이즈멘 클럽하우스를 인계받아서 (와이즈멘 클럽이 운영에 실패하여) 여기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들의 낡은 건물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매우 낡았고 그 형태도 매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마이카의 국립건축학회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그들은 새로운 건물을 소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건물이 헐리던 날 본인은 그곳에 있었는데 건물이 헐리는 모습은 매우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단번에 분해가 되었으며 낭비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잔해의 재료는 몇 개의 무더기로 나뉘었고 각각의 무더기는 새로운 건물이 이용될 4개의 공동체로 옮겨졌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방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 건물에는 두 부분으로 분리된 큼직한 강당도 들어 있었고 스튜디오 한 개와 재봉실 1개, 두 개의 회의실, 부엌 1개와 두 개의 커다란 욕실도 건축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Savanna la Mar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 그룹의 헌신과 책략에 대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와이즈메넷들은 본인이 국제총재로서 본인의 회기 중에 만난 가장 강한 집단 중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결실

By Dale Fotheringham, ISD Christian Emphasis 국제봉사부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16)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조직체로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천되고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기회와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열매는 우리의 깊은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특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등을 말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영적인 열매, 즉 집단적 열매란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세계'라는 건물 속에서 활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삶속에서 그 증거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평등, 인권, 정의, 사회개혁과 같은 문제에 역점을 두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해서 가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부족한 인식 때문에 사회문제에 직면하기를 선뜻 마음이 내키지 못합니다. 저의 희망은 우리 회원들이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헌신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YMCA나 국제연합과 같은 조직체와 협력하는 일에 가담하여 부적절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이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인권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블랙 말라리아 캠페인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제연합의 밀레니엄 발전목표에 포함된 목표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세계의 주된 발전적 도전에 반응하는 일치된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국제봉사조직의 한 부분이며 특별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재능을 소유한 존재이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하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12)

차기 국제 사무총장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다

여러 해 동안 보이스카웃과 관련된 일을 하고 나서 본인은 1982년 오사카 켄테니얼 와이즈멘 클럽의 준비모임에 초청을 받아 전 국제 총재인 고(故) Kensuke Suzuki 씨를 만났습니다. 1년 뒤에 저는 도쿄로 이사하여 도쿄클럽으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와이즈링이었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난 27년간 와이즈멘 활동 중에 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차터 멤버가 되었던 것은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며 저로 하여금 와이즈들의 힘을 깨닫게 해 준 것은 교토 88국제대회였습니다.

저는 그 대회에서 수석 마샬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직전 국제 사무총장 Ingvar Wallin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전 사무총장 Ingvar씨는 우리가 전개하는 운동의 모범적인 일꾼이었으며 저는 매우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제 사무총장 Rolando Damas씨와 ICM, AS, ASD 그리고 ISD-LTOD의 자격으로 그와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으며 우리는 함께 재조직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와이즈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우리의 운동을 위해 좀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제 사무총장이라는 도전적인 직책에 지원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 국제 의회에서 새로운 국제 사무총장을 찾기 위해 한 분의 국제 의원으로부터 기도요청을 받고 저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왜 나는 나의 최근의 사업과 또 다른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제외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아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 직책에 지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아심과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국제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나를 이 직책을 위해 사용하시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제 와이즈멘은 우리의 생기 넘치는 파트너인 YMCA와 함께 일하는 공동체에 우리의 선한 봉사를 펼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만, 중국,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인도 등등의 지역이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부만을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의 눈과 귀를 크게 열고 바깥사람들을 향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 클럽의 회장, 국제 의원, 지역 총재, 국제 임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2020년을 향한 우리의 과제와 비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본인은 여러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조직체의 종(下

시)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 총재도 아니고 국제 의회의 의원도 아니며 우리가 도전할만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일을 무대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스카웃으로서 영원히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 Kumiko는 와이즈 페넬의 제3세대이며 우리 부부에게는 현재 도쿄의 한 설비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있고 큰 딸은 미국에서 댄싱뮤지컬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작은 딸은 미국에서 아직 대학 재학 중인데 금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집회에 두 번째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은 수영과 골프를 즐기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날을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Y sly
Nishi (Takao & Kumiko Nishimura)



[사진설명: 2010 연중 중간회의에서 전 사무총장 Ingvar Wallin씨와 사무총장 Rolando Damas씨와 함께]